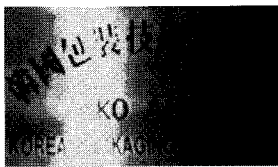


23년간 업계 애로사항 해결 창구 역할

향후 수입·수출 위한 시장조사 용역 늘릴 터



72년도 연구소 설립

1962년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종합경제계획의 효시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사에 커다란 획을 그어 주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에 투자할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을 뿐더러 이를 지원해 줄 여력을 가지지 못한 시기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포장관련 기관들이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본격적인 포장업무를 추진하고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개인 컨설턴트인 한국포장기술연구소는 당시 포장업계를 주도해 온 김영호 소장이 72년도에 설립하여 23년간 포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는 현재 김영

호 소장과 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40여회에 걸친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를 비롯하여 30회에 걸친 해외 포장전시회 시찰단 구성, 10여개사 포장관련 업체의 고문, 국내 최초로 포장관련 신문 잡지 단행본 카다로그 국내 보급, 포장기계 및 자재의 수출알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이미 업계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포장기술연구소는 향후 일본, 미국, 영국의 수출입을 위한 시장조사 용역, 해외 관계 기자재 수출·수입을 알선하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해외 포장산업의 신개발 뉴스를 책자화하여 국내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는 지금까지 국내포장업계에서는 전무한 유일한 컨설턴트로 차츰 컨설턴트에 대한



◀ 한국 포장기술연구소 내부 전경. 뒤로 각국의 포장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2명의 직원이 포즈를 취했다.

(표1) 그간 연구소가 컨설팅했던 주요업체

분 야	업 체
식품분야	해태제과(주), 롯데삼강(주), (주)빙그레, 동서식품(주), (주)농심, 제일제당(주)
전기분야	대우전자(주), 삼성전기(주)
중량물	풍산금속(주), 효성중공업(주), 대우중공업(주)
합성수지	한화종합화학(주), (주)유공, 금호석유화학
정부기관	인삼연초연구소, 농협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늘어나게 되는 초석의 역할

을 해외 국내 포장업계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지난해에는 같은 성격의 연구소 몇몇이 설립되는 표본이 되기도 했다.

국내업체를 지도한 해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은 캠퍼면에 서나, 제품의 품질면, 기계성능면에서 선진외국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인 터 뷰

한국포장기술연구소 김영호 소장

포장에 바친 33년 외길 인생

국내 포장역사의 산증인

포장이 그 이름조차 생소하여, 포장하면 포장작업이 나 도로포장 등을 먼저 떠올렸던 1963년 국내 최초로 육군기술연구소 식품연구과 내 포장연구실이 신설되었다. 명실공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기는 포장관련 연구부서였다. 그 당시 육군기술연구소 포장연구실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원이관에 따른 국내 조변 군수품의 포장재 개발 및 규격을 제정하거나 전투시 3년 저장이 가능한 비상식량의 특수 포장재를 개발하였으며 군용식품의 포장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시험 연구를 수행했다. 육군기술연구소 포장연구실의 신설과 함께 포장과 인연을 맺게 되어 33년간이나 포장산업계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포장기술연구소 김영호 소장이 털어 놓는 개인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나라 포장역사를 대변하는 듯 했다.

“그때는 포장이 생소한 시기라 화학과를 졸업한 제가 포장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의 반대로 컸습니다만 제 신념으로 부모님을 설득했고 지금도 그때 포장과 인연을 맺은 것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문을 연 김소장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가득찬 포장인의 모습이었다.

68년 포장기술의 향상·개선을 통하여 생산·유통·소비의 합리화에 의한 유통경비의 절감과 상품가치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이의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지도·보급 및 국제기구와의 제휴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포장기술협회 설립과 동시에 그는 육군기술연구소를 떠나 협회 기술과장과 대한통운(주) 포장사업소 포장기사를 겸직하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국내 처음으로 계간지인 포장기술지를 발간하고 포장관리사 교육실시하여 국내 최초의 전문인력인 포장관리사를 양성하기도 했다.

“그 당시 포장기술협회 회원사는 국내 굴지의 지류회사인 신흥제지, 대한제지, 한국수출포장 등을 비롯한 3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되었는데 협회사업을 추진할 전문가가 부족하여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으며 협회 업무외에 대한통운의 일관 유니트로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팔레트 표준화 작업, 포항 석유시추기 포장 등 두 분야의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라고 그간의 일을 회상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970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디자인과 포장, 두 분야의 진흥·개발없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수 없으며 수출증진도 이룰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기존 디자인포장관련 3단체를 통합,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설립되었고 그는 다시 포장개발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포장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상공부의 국고보조와 무역협회의 특례자금으로 전액 지원되어 정부의 포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2년간 포장개발부장에 재직중 일본 수출용

않지만 새로운 제품개발에 대한 의지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포장원부자재 생산업체들이 대부분 기업매출의 1%정도만을 개발비로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실태다. 경영주들의 제품개발에 대한 인식변환과 기계나 제품을 그저 받아 들이기 보다는 그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개발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만이 우리 포장의 질적개선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컨설턴트의 수도 많을 뿐더러 각기 특색이 있고 그러기에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한국포장기술연구소도 지금까

지는 포장전반적인 분야를 전체적으로 컨설팅해 왔고 또 국내 여건상 그럴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연구소만의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전문 포장인력 보강, 규모 확대로 다양한 사업전개를 하게 될 것이다. [K]

이선하 기자



▲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

어류제품의 포장개선을 비롯하여, 어상자 개선, 물류개선을 위한 별도의 물류과 설치, 일관 수송시스템 도입의 장점 홍보를 위해 AUTO SLIDE를 제작하여 업계에 홍보하는 등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사업을 이뤄냈다.

“서른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많은 책임감을 갖는 부장이라는 직책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젊었기에 일에 심취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당시 취약산업 7개분야중에 포장도 속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더많은 자금지원을 받기위해 노력했었죠” 남들보다 일찍 포장업계에 뛰어들어 각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경험으로 습득할 수 있었던 김영호 소장은 비로소 자신의 지식을 업체 모두에게 환원하고 특히 포장에 손조차 닿수 없었던 중소기업의 포장향상을 위해 72년 포장컨설팅 성격의 한국포장기술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후로 지

금까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여 이제는 전 업계에서 모두들 그를 급하게 찾는 일이 흔히 있는 일로 되었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포장인으로써 그가 지켜야했을 책임감은 그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 그를 일컬어 업계에서는 ‘만능 포장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장기술자는 많지만 노련한 포장관리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분야에 한정된 지식이 아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응용할 수 있는 진정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컨설팅 업체도 늘어나고 선진외국에서 폭넓게 포장을 공부하고 온 관리자들이 충실히 그 역할을 해내리라 확신합니다.”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컨설팅업체가 많지 않은 편인데 컨설팅의 장점이 용역 의뢰시 최대의 노력을 얻을수 있다는 점과, 기업의 비밀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는점, 외부의 정보를 충분히 섭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장담했다.

독일에서는 ‘MISTER’라하여 한 일에 평생을 건 기술자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을 받고 있다. 그만큼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매달릴수 있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높이사고 존경하는 것은 그간 이루어낸 성과면에서도 그러하지만 한 분야를 지켜왔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포장업계는 아직도 나를 필요로하고 그래서 죽을때까지 포장을 떠날수 없다”라며 “오랜동안 포장을 공부해 왔지만 아직도 해야할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김소장의 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김영호 소장은 올해 56세로 81년에 포장기술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취득하였고 저서로는 ‘공업포장’과 ‘후렉소 인쇄기술 입문’이 있다.